

# 지방선거 '비방·과열·혼탁' 극심

## 나주시장,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고소

### 선관위, 금품살포 함평군수 후보 검찰 고발

6·13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오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광주·전남 곳곳에서 선거운동이 과열·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악역적인 가짜뉴스가 유포돼 출마 후보자가 수사기관에 관련 법적절차를 밟고 있고, 일부지역에선 유권자에게 돈봉투가 전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중이다.

4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민주당 강인규 나주시장 후보측은 최근 가짜뉴스를 작성한 지역 모 일간지 기사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강 후보측은 가짜뉴스를 유통한 사람들과 상대 후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후보측은 "모 일간지에서 '나주 강인규의 양심, 군번 도용 유포 사취'라는 제목 및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관련 보도는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악의적이고, 민심을 호도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의 관련 기사가 보도된 후, 상대 정당측

에선 블로그 등을 통해 기사를 확대 재생산하고 논평까지 내면서 선거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앞서, 상대정당측은 기사보도 후 논평을 통해 "강 후보의 군번도용 유포 사취 논란은 민주당 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미 제기된 내용이다"며 "당 차원에서 관련 의혹을 무마 시켜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함평에선 군수 선거와 관련해 돈봉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선관위는 함평군수 후보 측근 A씨를 최근 유권자에게 현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A씨는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으로 지역 주민 B씨에게 5만원권 지폐 10장이 든 봉투를 전달 한 것으로 확인됐

다. B씨는 다음날 돈봉투를 A씨에게 돌려주고, 관련사실을 선관위에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남에선 선거관련 기사 삭제 대가로 광고비를 요구한 지역 모 언론사 관계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 조사결과, 이 관계자는 출마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내려주는 댓가로 300만원 상당의 광고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에선 선거운동 자료를 작성한 현직 공무원과 이를 작성하게 한 시의원 후보자 그리고 같은 당 경선후보 등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정당 경선 심사 활동계획서 ▲PPT 발표 자료 ▲모바일연회장 ▲의

정보고서 ▲선거 공보물 ▲보도자료 등을 기획·작성·지시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31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선거사범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중립자세로 신속·공정하게 수사해 선거가 무사히 치러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도 "지난 지방선거에 비하면 적은 수이지만, 지검별로 확인하면 광주·전남의 선거사범 위반 입건자가 가장 많다"며 "공명정대하고 충실한 수사로 선거사범 단속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기자

## "신용 울러줄게 거래 실적 쌓아"

### 보이스피싱 전담책 중국인 구속

목포경찰서는 대포통장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사기)로 중국인 A씨(29)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50분께 목포의 한 은행에서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한 B씨(47·여)에게 돈을 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에 이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중국 심양에서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지시를 받고 서울역과 광주 도심 등지에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대출 업체를 알아보면 중 "신용 등급을 높이려면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A씨 일당에게 속아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출금하는 창구로 악용되는 피해를 봤다.

목포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21일에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 3,600만원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한 2명을 구속했다.

/목포=김동균 기자

## 동명동 카페거리 일부 일방로 지정

### 동구 "불법주정차 차량통행 민원 해소 위해"

광주 동구는 동명동 '카페거리' 일부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동명동 '카페거리'는 최근 2~3년 사이 150여개의 카페·식당 등이 들어서 서울 '경리단길'을 본떠 '동리단길'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구는 카페거리로 유명세를 치르는 만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 민원도 빚어져 이곳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키로 했다.

일방통행로로 지정구간은 광주아이플렉스(I-PLEX) 앞 도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외곽주차장

인접도로 등 2곳이다.

서석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인 광주-PLEX 앞 장동로 왕복 2차로는 '좋은식당'에서 '커피에담' 방향으로 약 185m 구간이 일방로로 지정됐다.

ACC외곽주차장과 인접한 제봉로 98번길도 서석초 방향으로만 일방 진입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야간과 주말에 물리적으로 주정차단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일방로를 지정해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



저염 건강요리교실. 광주시 남구는 4일 효천2지구 제일풍경채2단지 아파트에서 주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저염쌈장 만들기, 저염조리법 교육 등 저염 건강요리교실을 운영했다.

## 일선 판사들 '재판거래' 검찰수사 요구 불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법원에서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은 4일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체 판사의 11% 가량이 소속된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이라 이번 결의 내용이 다른 법원 구성원들의 논의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아직 지법 부장판사 이상 직급의 중견·고참 법관들의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국 법원의 단독 및 배석 판사 등 젊은 법관들 사이에서는 의혹 관련자들에게 대한 형사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확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은 이날 낮 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광주소방 '폭염구급대' 운영

### 30개 구급대에 얼음조끼·식염수 등 갖춰

최근 30도를 훌쩍 넘어서는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소방당국도 발빠르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무더위에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는 9월까지 폭염 대응 체제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다가옴에 따

라 폭염으로 인한 열원 질환자 발생 등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5개 소방서 30개 구급대를 '폭염 구급대'로 지정했다.

모든 구급차에 얼음조끼·생리식염수 등 열원 환자 장비를 갖추고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와 병원이송 등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열원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 현황을 119 구급대에 실시간 안내하고 현장 상황을 병원으로 신속히 통보해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조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은 "폭염은 새로운 자연재해로 불릴 만큼 여름철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폭염 예방법과 행동요령을 알아두고 열원 질환 환자 발생 시 119신고 등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 "카드결제 왜 안돼?" 폭행

○...분식점 에서카드결제를 해주지 않는 다며 소란을 피우고 주인을 폭행한 40대가 경찰서 행.

○...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만취한 정 모씨(48) 지난 2일 새벽 1시 10분께 서구 치평동 조 모씨(40)가 운영하는 분식점에서 음식을 먹은 뒤 신용카드로 계산하려했으나 주인이 현금을 요구하자 소란을 피우고 조씨를 폭행한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카드결제를 안해준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폭력을 휘둘러서야 되겠다"며 혀를 끌ꭌ.

/김종찬 기자

전남매일 www.jndn.com



● 특수경매 전문  
● 입찰부터 매매까지  
● 건축 리모델링·개발전문

# 법률경매 (주)대신경매

● 경매교육 ●  
(기초부터 ~ 실전 전문)  
★ 6월 개강 선착순 모집 ★

### 상가빌딩 (추천)

- 1) 서구 쌍촌동 (3층상가주택)  
토 90평 건 107평 / 대단위 아파트 부근  
▶ 감정가 6억 → 최저가 4억2천
- 2) 남구 진월동 (5층상가빌딩)  
토 128평 건 406평 / 대단위 아파트 위치  
▶ 감정가 18억 → 최저가 15억9천
- 3) 화순 도곡면 (무인텔)  
토 3,289평 건 3,278평 / 객실 32개 (월수익 5,000만 이상)  
▶ 감정가 38억 → 최저가 11억
- 4) 남구 주월동 (마트)  
토 108평 건 83평  
▶ 감정가 14억6천 → 최저가 10억
- 5) 서구 금호동 (4층 1층상가)  
토 69평 건 137평 / 대단위 아파트 코너위치  
▶ 감정가 13억 → 최저가 13억

### 근린상가

- 1) 서구 금호동 (7층 4층상가)  
토 54평 · 건 89평  
대단지 아파트 도로변위치 · 전망 최고  
▶ 감정가 6억 → 최저가 3억3천
- 2) 북구 용봉동 (12층 중 7층 상가)  
토 62평 · 건 100평  
▶ 감정가 6억7천 → 최저가 2억9천9백
- 3) 동구 남동 (상가주택)  
토 30평 · 건 49평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7천
- 4) 남구 봉선동 (4층 중 1층 상가)  
토 60, 건 102평  
▶ 감정가 18억 → 최저가 12억6천
- 5) 서구 매월동 (7층 중 3층상가) 자동차매장  
토 4평 건 15평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4천

### 토지 추천

- 1) 서구 매월동 (348평)  
유통단지 입구 교차로 코너  
6차로대로 접 (식당·물류·투자최고)  
▶ 시세 - 18억 → 최저가 9억5천
- 2) 북구 문흥동 (토지) 378평  
▶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 3) 남구 월산동 (100평)  
▶ 감정가 1억 2천 → 최저가 7천9백
- 4) 나주시 송월동 (171평) 한국전력공사·상업지  
▶ 감정가 8억4천5백 → 4억 7천
- 5) 광성군 장성읍 (90,910평)  
▶ 감정가 5억4천 → 최저가 3억3백
- 6)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554평) 오성산업단지 인근  
▶ 감정가 1억7천8백 → 최저가 1억2천
- 7)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84평)  
▶ 감정가 20억 8천 → 10억

### 상가 매매(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12층 6층 상가)

23평 (투룸형)  
보 5백 월 33만

▶ 시세 1억3천  
매가 7천5백만

- 1) 상무지구 중심구역 상가 (12층 6층)  
19평 (보 5백 월 33만) ▶ 매가 7천만
- 2)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상대 1분 (코너)  
토 65평 건 164평 (4층 안접임유)  
보 1억6천 월 430만 ▶ 매가 11억2천만
- 3)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초역세권 토지)  
송탄역 1분 (코너) (건축허가완료)  
개발시 수익의 10% ▶ 매가가 9억
- 4) 평택 독곡동 전원주택 분양(투자적합)  
송탄역 1.5분 (고덕신도시 7분 !!)  
1필지 약 200평 ▶ 매가 2억4천만(용 1억2천)
- 5) 원룸 토지매매 (광산구 신장동)  
코너 166(상가 1개) ▶ 매가가 3억5천만

### 원룸 매매 {상가 신축}

월곡시장 2분 (고려인마을)  
신정공원 바로 앞 (코너)

1층 ★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10개) 투룸 (2개)  
4층 (주택)

★ 공원 앞 전망 최고 ★

보 9천만 월수입 600만 (용 3억)

▶ 매가 9억 5천만

010-6670-9800

010-7384-7800

010-6670-9800